

축적과 소비사이의 합리적인 균형라산

김 용 운

현시기 과학적인 경제전략에 기초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경제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옳게 타산하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은 나라의 살림살이와 사회주의적재생산의 전 과정을 규정하는 중요한 균형입니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은 전반적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4권 159페이지)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는것은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축적과 소비는 다같이 인민적성격을 띠며 서로 련관되고 통일되어 있다. 그것은 축적과 소비가 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리용되며 축적이 소비를 늘이는 조건으로 되고 소비의 장성이 축적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기때문이다.

축적과 소비의 관계는 나라의 경제토대와 당면한 인민생활과의 호상관계, 인민들의 전망적인 리익과 당면한 리익과의 호상관계문제와 련결되어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바로 보장하여야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결합시키고 다같이 최상의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그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자면 국민소득과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들사이의 합법칙적인 련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기초시기와 전략기간 국민소득과 축적, 소비의 규모들을 각각 N_0, G_0, C_0 과 N_1, G_1, C_1 로 표시하고 이 기간의 축적률을 각각 $\rho_G^{(0)}, \rho_G^{(1)}$ 로 표시하면 다음의 관계식들이 성립한다.

$$N_i = G_i + C_i, \quad G_i = \rho_G^{(i)} N_i, \quad C_i = (1 - \rho_G^{(i)}) N_i, \quad (i = 0, 1)$$

그러면 전략기간의 국민소득과 축적, 소비의 장성속도(ν_N, ν_G, ν_C)들사이의 련관관계를 구할수 있다. 즉

$$\begin{aligned} \nu_N &= \frac{N_1}{N_0} = \frac{G_1 + C_1}{N_0} = \frac{G_0}{N_0} \frac{G_1}{G_0} + \frac{C_0}{N_0} \frac{C_1}{C_0} = \rho_G^{(0)} \nu_G + (1 - \rho_G^{(0)}) \nu_C \\ \nu_G &= \frac{G_1}{G_0} = \frac{\rho_G^{(1)} N_1}{\rho_G^{(0)} N_0} = \frac{\rho_G^{(1)}}{\rho_G^{(0)}} \nu_N, \quad \nu_C = \frac{C_1}{C_0} = \frac{(1 - \rho_G^{(1)}) N_1}{(1 - \rho_G^{(0)}) N_0} = \frac{(1 - \rho_G^{(1)})}{(1 - \rho_G^{(0)})} \nu_N \end{aligned}$$

이로부터 전략기간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들사이의 다음과 같은 합법칙적인 련관관계의 체계가 존재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begin{cases} v_N = \rho_G^{(0)} v_G + (1 - \rho_G^{(0)}) v_C \\ v_G = \frac{\rho_G^{(1)}}{\rho_G^{(0)}} v_N \\ v_C = \frac{(1 - \rho_G^{(1)})}{(1 - \rho_G^{(0)})} v_N \end{cases} \quad (1)$$

우에서 본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사이의 련관관계의 체계는 국민소득의 장성속도가 축적률과 함께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는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에 의하여 제약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선 식 (1)의 첫째 식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전략기간 국민소득의 장성속도가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들의 기초시기의 축적률에 의한 가중산수평균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민소득가운데서 축적몫이 늘어날수록 국민소득의 장성속도는 축적의 장성속도에 접근하며 소비몫이 늘어날수록 국민소득의 장성속도가 소비의 장성속도에 접근한다.

또한 식 (1)의 둘째, 셋째 식은 국민소득의 장성속도가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에 제한적인 작용을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즉 국민소득의 장성속도가 높아진다는것은 국민소득의 규모가 늘어난다는것이며 이것은 축적과 소비를 보다 늘일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마련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사이의 련관관계의 체계를 리용하면 전략기간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타산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선 첫째 식을 리용하면 기초시기 축적률과 전략기간에 도달하여야 할 축적과 소비 규모(그 장성속도들)가 주어진 조건에서 국민소득의 장성속도를 예측할수도 있으며 전략기간에 설정된 국민소득과 축적 및 소비의 장성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된 국민소득의 축적과 소비에로의 분배문제도 해결할수 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식의 도움으로 국민소득장성의 전략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 또는 전략기간의 축적률을 타산할수도 있다.

또한 축적을 우선적으로 빨리 늘이면서 소비를 동시에 늘일데 대한 축적과 소비의 균형법칙의 요구에 맞게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축적률의 합리적인 설정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축적과 소비의 호상관계에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은 $v_G > v_C$ 으로 표시할수 있다. 이 조건을 식 (1)의 첫째와 둘째 식들을 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수 있다.

$$\frac{\rho_G(t+1)}{\rho_G(t)} > \frac{1 - \rho_G(t+1)}{1 - \rho_G(t)} \quad (2)$$

여기서 $\rho_G(t)$ 는 t 년도 축적률이다.

소비몫의 장성보다 축적몫의 우선적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것을 반영한 조건 (2)와 함께 소비를 동시에 늘여야 한다(조건 $\frac{1 - \rho_G(t+1)}{1 - \rho_G(t)} \geq 1$)는 축적과 소비의 균형법칙의 요구를 고려하면 $\rho_G(t+1) \geq \rho_G(t)$ 를 얻는다. 이것은 전략기간 축적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축

적과 소비의 호상관계에서 소비의 장성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고 소비의 장성도 따라세울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소비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는것은 축적과 소비의 균형법칙의 요구이지만 경제발전의 일정한 전략적단계에서는 조성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축적률을 일시적으로 조절할수도 있다. 그렇기때문에 축적률의 합리적인 설정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사이의 련관관계의 체계 (1)로부터 축적률의 변동에 따라 그 장성속도들사이에는 다음의 경우들이 존재한다는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전략기간 축적률을 고정시킨다면 ($\rho_G(t+1)=\rho_G(t)$ 인 경우)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는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같아지게 된다는것이다. 즉 $v_N=v_G=v_C$.

둘째로, 전략기간에 축적률을 전해보다 높여나가는 경우 ($\rho_G(t+1)>\rho_G(t)$ 이다.)에는 소비의 장성보다 축적의 우선적장성이 보장된다. 즉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들사이의 량적관계에서는 $v_G>v_N>v_C$ 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축적의 우선적장성이 보장되므로 소비도 동시에 늘일수 있는 축적률의 범위를 타산하여야 축적과 소비의 균형법칙의 요구를 실현할수 있다.

소비규모를 이전보다 더 늘인다는것은 $v_C>1$ 이 성립한다는것을 의미하므로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축적 및 소비의 장성속도사이의 련관관계의 체계 (1)의 셋째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v_C(t+1)=\frac{1-\rho_G(t+1)}{1-\rho_G(t)}v_N(t+1)>1$$

여기로부터 $\rho_G(t+1)<1-\frac{1-\rho_G(t)}{v_N(t+1)}=\frac{\rho_G(t)+\Omega_N(t+1)}{1+\Omega_N(t+1)}$ 이 나온다. 여기서 Ω_N 은 국민소득의 증가속도이다.

그러므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도 소비를 동시에 늘일수 있게 하는 축적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rho_G(t)<\rho_G(t+1)<\frac{\rho_G(t)+\Omega_N(t+1)}{1+\Omega_N(t+1)} \quad (3)$$

식 (3)은 축적률을 높이는 경우의 소비규모장성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실례로 t 년도의 축적률이 0.3인데 다음해에 축적률을 더 높여 국민소득을 106% 장성시키면서도 동시에 소비규모를 늘이려고 하는 경우 축적률을 어느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소비규모장성조건 (3)에 의하면 축적률의 타산범위는 다음과 같다.

$$0.3<\rho_G(t+1)<\frac{0.3+0.06}{1+0.06}=0.3396$$

그러므로 다음해의 축적률을 0.33으로 정하는 경우에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는 식 (1)의 둘째, 셋째 식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v_G=\frac{0.33}{0.3}\times 106=116.6, \quad v_C=\frac{1-0.33}{1-0.3}\times 106=101.46$$

이것은 위에서 타산된 범위에서 축적률을 정하면 소비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

장하면서 소비도 동시에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셋째로, 축적률이 이전보다 낮게 $\rho_G(t+1) < \rho_G(t)$ 로 정해지는 경우 국민소득의 장성속도와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들사이의 양적관계에서는 $v_G < v_N < v_C$ 가 성립한다. 이처럼 축적의 장성속도가 소비의 장성속도보다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축적의 절대적규모는 이전보다 커지도록 하는 축적률의 범위를 타산할수 있다.

축적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지지만 축적의 절대적규모를 커지게 하자면 식 (1)의 둘째식으로부터 조건 $v_G = \frac{\rho_G(t+1)}{\rho_G(t)} v_N(t+1) > 1$ 이 성립하여야 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즉

$$\rho_G(t) > \rho_G(t+1) > \frac{\rho_G(t)}{1 + \Omega_N(t+1)} \quad (4)$$

식 (4)는 축적률을 낮추는 경우의 축적규모장성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실례로 t 년도의 축적률이 0.33이고 다음해에 국민소득을 106% 장성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축적의 절대적규모는 늘이면서도 다음해의 축적률을 지금보다 낮출수 있는 범위를 타산하기로 하자.

축적규모장성조건 (4)에 의하면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0.33 > \rho_G(t+1) > \frac{0.33}{1+0.06} = 0.3113$$

그러므로 다음해의 축적률을 타산된 범위안에서 현재보다 낮게 0.32로 정한다면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는 식 (1)의 둘째, 셋째 식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v_G = \frac{0.32}{0.33} \times 1.06 = 1.028, \quad v_C = \frac{1-0.32}{1-0.33} \times 1.06 = 1.076$$

이와 같이 축적률을 전에 비하여 낮게 정하여도 우에서 타산된 범위안에서만 정하면 비록 축적의 장성속도가 소비의 장성속도에 비하여 훨씬 떨어지지만 축적의 절대적규모는 2.8% 늘어난다.

전략기간 축적률을 타산하는데서 조성된 정황에 따라서 식 (3)이나 (4)를 고려하지 않고 그 범위밖에서 축적률을 정한다면 소비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은 보장할수 있어도 소비규모가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으며 또는 축적률을 지나치게 낮추어 축적의 절대적규모까지 줄어들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략기간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관계를 타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소비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의 장성이 축적의 장성에 따라설수 있도록 축적률을 설정하는것이다.

축적의 장성속도와 소비의 장성속도의 비 $\frac{v_G}{v_C} = \frac{\rho_G(t+1)}{\rho_G(t)} \frac{1-\rho_G(t+1)}{1-\rho_G(t)}$ 을 보기로 하자.

소비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자면 비 $\frac{v_G}{v_C}$ 가 1보다는 작지 말아야 한다. 그

아래한계(그것을 a 라고 하자.)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와 현실적조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들의 비의 값이 크면 클수록 그 장성속도들의 차이가 심해지므로 그 윗한계 b 를 옳게 정하여야 한다.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를 동시에 장성시키려면 축적률이 식 (3)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위의 비에서 $\rho_G(t+1)$ 대신에 그보다 큰 $\frac{\rho_G(t)+\Omega_N(t+1)}{1+\Omega_N(t+1)}$ 을 대입하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작아지므로 $\frac{\nu_G}{\nu_C}$ 의 윗한계 b 의 값 $b=1+\frac{\Omega_N(t+1)}{\rho_G(t)}$ 을 구할수 있다. 결국 $\frac{\nu_G}{\nu_C}$ 에 대하여 조건 $a < \frac{\nu_G}{\nu_C} = \left\{ \frac{\rho_G(t+1)}{\rho_G(t)} \middle/ \frac{1-\rho_G(t+1)}{1-\rho_G(t)} \right\} < b$ 가 성립하여야 한다.

이 조건으로부터 전략기간 소비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의 장성이 축적의 장성에 따라설수 있도록 하는 축적률의 범위를 확정할수 있다. 즉

$$\frac{a\rho_G(t)}{1+(a-1)\rho_G(t)} < \rho_G(t+1) < \frac{b\rho_G(t)}{1+(b-1)\rho_G(t)} \quad (5)$$

실례로 t 년도의 축적률이 0.3이고 다음해의 국민소득의 장성목표가 106%인 경우 소비에 비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의 장성이 축적의 장성에 따라설수 있도록 하는 축적률의 범위를 타산하여보자.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들의 비의 윗한계는 $b=1+\frac{0.06}{0.3}=1.2$ 이다. 그러므로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들의 비의 아래한계를 $a=1.03$ 으로 정하였다면 식 (5)를 리용하여 타산된 축적의 우선적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의 장성이 축적의 장성에 따라설수 있도록 하는 축적률의 범위는

$$\frac{1.03 \times 0.3}{1+(1.03-1) \times 0.3} < \rho_G(t+1) < \frac{1.2 \times 0.2}{1+(1.2-1) \times 0.3}$$

이다. 즉 $0.3062 < \rho_G(t+1) < 0.3396$.

그러므로 다음해의 축적률을 0.32로 놓으면 식 (1)의 둘째, 셋째 식들에 의하여 축적과 소비의 장성속도들은 다음과 같다.

$$\nu_G = \frac{0.32}{0.3} \times 1.06 = 1.13, \quad \nu_C = \frac{1-0.32}{1-0.3} \times 1.06 = 1.03$$

우리는 축적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타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경제사업에 대한 전략적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다 원만히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